

기술분석보고서 IT

예선테크(25093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테크(250930)

기능성 점착소재의 설계·정밀가공 역량 기반 자동차 전장과 이차전지 분야로 확장 중

기업정보(2026.07.23 기준)

대표자	전춘섭
설립일자	2005년 1월 6일
상장일자	2019년 9월 11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기능성
주요제품	점착소재부품 및 관련 제품 등

시세정보(2026.07.23 기준)

현재가(원)	1,778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17
발행주식수	6,600,088주
52주 최고가(원)	3,900
52주 최저가(원)	1,520
외국인지분율	-
주요주주	전춘섭 외 4인, 변승훈

■ 디스플레이 중심 사업 기반 자동차·에너지 분야로 적용처 확대 중

예선테크(이하, 동사)는 디스플레이용 기능성 점·접착 소재와 정밀 가공 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국내 본사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폼패드, 본딩테이프, 가스켓패드 및 보호 필름 등을 공급하고 있다. OLED와 LCD 관련 제품 중심으로 매출 발생 중이나, 자동차 디스플레이·내외장재용 고신뢰성 점착소재와 대형 이차전지용 방열·절연·화염 차단 소재를 신규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영업은 고객사 개발단계부터 참여하는 기술영업 방식으로, 소재 조합과 정밀 가공, 품질관리 및 해외 대응 역량 기반으로 주문과 납품을 반복하는 구조이다.

■ 고기능·친환경 산업용 점착·접착소재 수요가 확대되는 시장

목표시장은 전방산업에서 접합뿐 아니라 방열, 절연, 난연, 충격흡수, 차광, 보호 기능을 함께 요구하면서 고기능 소재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체 점착테이프 시장은 성숙 산업의 성격을 보이나, OLED 및 IT용 고사양 디스플레이 확대, 자동차 경량화와 전장화, 전기차 배터리의 열관리·안전성 강화, 친환경·저VOC 소재 전환 흐름이 산업용 기능성 소재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선도업체의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가 높고, 범용 제품에서는 가격 경쟁이 지속 중으로, 고객 맞춤형 기능 설계 및 정밀 가공 등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 기존 사업의 경쟁력 고도화와 더불어 자동차·이차전지용 기능성 소재의 양산 전환 추진

동사는 OLED·LCD용 점착부품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자동차 전장과 이차전지 안전소재로 적용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구축과 인공지능 기반 비전검사 도입을 통해 생산 자동화와 품질관리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주주환원은 즉각적인 배당 확대나 자기주식 소각보다 재무구조 안정과 배당 여력 확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주식병합은 주당 지표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 대응으로 평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441.2	-17.0	-88.0	-19.9	-102.1	-23.1	-37.4	-17.4	146.0	-1,547	3,509	-0.48	0.21
2024	436.1	-1.1	-32.4	-7.4	-59.7	-13.7	-31.1	-11.1	227.3	-904	2,594	-0.50	0.18
2025	378.8	-13.2	-8.1	-2.1	-7.6	-2.0	-4.8	-1.5	232.8	-114	2,445	-4.29	0.20

기업경쟁력

소재 설계부터 양산까지 연계된 통합 대응력	기능성 원료 선정, 적층구조 설계, 시제품 제작, 정밀 가공 및 양산조건 최적화를 연계해 고객 요구사항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
고객 맞춤형 기술영업 역량	고객의 제품 구조, 사용환경 및 제조공정을 분석해 적합한 소재 조합과 가공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제품 개발단계부터 양산까지 대응
글로벌 생산·품질관리 체계	국내 본사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생산거점, IATF 16949 및 AEO AA등급 등의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해외 고객의 품질·납기·현지 조달 요구에 대응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고기능 점·접착 소재 설계 및 복합 적층 기술	폼, 필름 및 점착층의 구성과 구조를 조정해 접착·충격 흡수·차광·방열·절연 등의 기능을 구현하며, 디스플레이용 폼패드·본딩테이프와 자동차 전장용 점착부품에 적용
정밀 합지·타발 및 봉지재 재단 기술	슬리팅, 라미네이팅, 갭 형성 가공 및 프레스 타발을 통해 복잡한 형상과 치수 정밀도를 구현하며, OLED 봉지재와 디스플레이용 가스켓·보호부품에 활용
이차전지용 화염·열 차단 소재 기술	화염차단층과 필름형·폼형 내화점착층을 복합화해 열전달과 화염 확산을 지연시키며,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팩용 내화시트와 안전부품에 적용

시장경쟁력

디스플레이용 점착부품 공급기반	OLED·LCD용 기능성 점착소재를 주력으로 공급해 온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기반 유지
자동차 전장시장 적용처 확대 가능성	차량 내 디스플레이 확대와 부품의 고신뢰성 요구에 대응해 보호테이프, 내·외장재용 본딩테이프 및 전장용 기능성 소재의 공급 확대 추진
이차전지 안전소재 시장 진입 기반	배터리 화재안전 요구 강화에 대응하는 내화·열차단 소재와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고객 검증과 양산 승인 여부에 따라 신규 시장의 매출 기여도 확대 가능성 존재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기능성 점착소재 설계, 복합 적층 및 정밀가공 역량을 활용해 고객의 접착, 충격 흡수, 열관리 및 화재 안전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제품 고기능화와 적용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소재 조합, 갭 형성 가공, 대형 OLED 봉지재 재단 및 배터리용 내화시트까지 연계한 사업구조는 일반 점착소재 업체와 차별화되나, 개별 소재와 가공기술의 희소성은 제한적이다.	고객별 요구에 대한 설계 경험, 전용 설비 운용 노하우, 공동개발·특허 및 해외 양산 대응 능력은 단기간 내 모방이 쉽지 않다.	연구소, 국내의 생산거점, 각종 인증 및 영업 체계를 통해 보유기술의 개발과 양산을 지원하나, 제한적 연구인력과 투자규모를 고려할 때 신규 사업의 선택적 사업화가 중요하다.

I. 기업 현황

디스플레이 중심 기능성 접착소재 사업 기반 자동차·에너지 분야로 적용처 확대 중

동사는 디스플레이용 기능성 점·접착 소재와 정밀 가공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국내 본사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폼패드, 본딩테이프, 가스켓패드 및 보호필름 등을 공급하고 있다. OLED와 LCD 관련 제품 중심으로 매출 발생 중이나, 자동차 디스플레이·내외장재용 고신뢰성 접착소재와 대형 이차전지용 방열·절연·화염 차단 소재를 신규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영업은 고객사 제품 개발단계부터 참여하는 B2B 기술영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소재 조합과 정밀 가공, 품질관리 및 해외 현지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주문과 납품을 반복하는 구조이다.

■ 기업 개요

동사는 2005년 1월 설립된 기능성 점·접착 소재 및 가공부품 제조기업으로, 설립 초기 휴대전화에 열접착 필름 가공품인 TBF(Thermal Bonding Film) 다이컷 부품을 공급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중대형 디스플레이용 폼패드, 본딩테이프, 가스켓패드, 발광다이오드 어레이 고정테이프 및 보호필름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했고, 2019년 케이비제10호 기업인수목적 회사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현재 국내 본사와 중국 광저우·수저우, 베트남 하이퐁, 인도네시아 찌카랑의 해외법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수익모델은 점착테이프, 폼, 필름 등 기초소재를 고객 제품의 형상과 요구 물성에 맞게 조합·가공한 후 디스플레이 패널 및 모듈 제조사, 자동차 전장부품 업체, 이차전지 관련 업체 등에 공급하는 구조이다. 주요 제품은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 고정용 폼패드와 본딩테이프, 충격 흡수와 이물·빛샘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켓패드, 패널 표면 보호필름 등이다.

동사는 단순 점착 기능뿐 아니라 충격 흡수, 차광, 방열, 전자파 차폐, 절연, 내화학성 및 화염 지연 기능을 결합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외 생산거점을 활용한 고객 인접 대응, 소재 조합 및 정밀 가공 역량, 제품별 맞춤 설계 경험이 주요 경쟁 기반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기존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원재료 수율 개선, 공정 자동화, 인공지능 기반 비전검사 도입 등을 통해 제조원가와 품질 경쟁력을 관리하고, 범용 제품보다 부가기능과 고객 맞춤성이 높은 소재의 매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97인치급까지 대응 가능한 대형 OLED 봉지재 재단 공정, 고온·고습 및 진동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 디스플레이·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용 점착소재, 내화성과 경량성을 갖춘 대형 이차전지용 열폭주 차단 소재를 신규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다만 신규 사업은 고객 승인과 신뢰성 검증, 특허·인증 확보 및 양산 전환이 순차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사업 다각화의 성과는 주요 고객사의 실제 채택 여부와 고부가 제품 중심의 매출구조 전환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연월	내용
2005.01	주식회사 예선테크 설립 모토로라 휴대폰 향 열가소성 접착필름 가공품 공급 시작
2006.01	LG, Philips LCD 협력사 공급 시작
2013.05	ISO 14001 인증
2019.09	코스닥시장 상장
2019.10	SONY사 GREEN PARTNER 등록(베트남법인, 중국 수저우법인)
2021.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	IATF 16949:2016 인증취득
2025.06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
2025.1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A등급 공인증서 수상(서울세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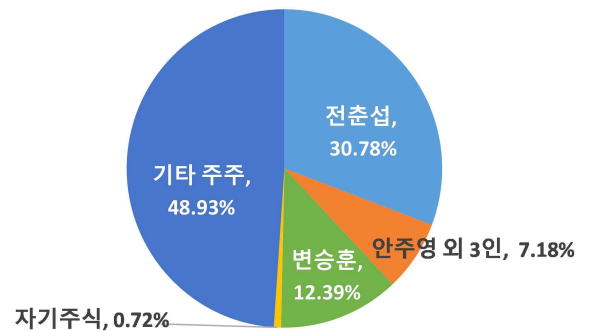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7월 주식 병합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전춘섭으로, 전체 발행주식(6,600,088주) 중 2,031,455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지분의 30.78%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안주영 외 3인의 특수관계자가 473,829주(7.18%)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37.96%이다. 한편, 변승훈(12.39%)이 주요주주로 확인되고, 동사는 47,791주(0.72%)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229,058주(48.93%)는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전춘섭 최대주주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면 경영 연속성은 비교적 높은 구조다. 다만 소액주주 및 기타 주주의 유통 비중도 상당해 시장 거래와 주가 변동성은 외부 투자자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주 구조는 빠른 의사결정과 장기 사업전략 추진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소수 경영진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이사회 독립성, 승계, 외부주주와의 이해 조정이 중요한 관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전춘섭	2,031,455	30.78%	최대주주
안주영 외 3인	473,829	7.18%	특수관계인
변승훈	817,955	12.39%	
자기주식	47,791	0.72%	
기타 주주	3,229,058	48.93%	
합계	6,600,088	10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동사 제공자료, 주식 병합 기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는 기능성 접착소재부품 사업을 기반으로 하며, 적용 산업에 따라 OLED, LCD, 자동차, 에너지, 기타 부문으로 구분된다. 각 부문은 별도 기술 체계로 분리되지 않고, 점착·접착 성능 설계, 소재 복합화, 정밀 재단 및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전방산업 요구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다. 동사의 핵심 사업은 OLED 및 LCD 디스플레이용 기능성 접착소재이며, 자동차와 에너지 부문은 적용처 다변화를 위한 보조·성장 사업이다.

OLED 사업부분은 OLED 기기(TV, 모니터 등)에 적용되는 기능성 접착소재와 OLED 패널에 적용되는 FSPM(봉지재)로 구성된다. OLED 기기향 주요 제품은 Foam pad, EFR Foam Pad, COF Pad, 본딩테이프 등으로 OLED 패널을 백커버 모듈에 부착하거나, 패널을 보호하고, 진동/충격을 흡수하고, 열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OLED는 패널 구조가 얇고 외부 충격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착 기능보다 패널 손상 방지, 접합 안정성, 장기 신뢰성이 중요하다.

LCD 부문은 LCD TV와 모니터, Mini LED TV 등 중대형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되는 기능성 접착소재가 중심이다. LCD TV·모니터 패널을 가이드 패널에 부착하는 Foam Pad, 충격흡수, 이물방지, 빛샘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Gasket Pad, LED BLU(Back Light Unit)가 적용되는 LCD TV의 LED 어레이를 고정하는 LED array tape가 주요 제품이다. 기존 주력 부문으로 동사의 매출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제품 단가와 수요는 TV·모니터 시장의 생산계획, 고객사 모델 구성, LCD 및 Mini LED 적용 확대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예선테크(250930)

자동차 사업은 차량용 보호테이프, 내·외장재용 본딩테이프와 전장 디스플레이용 고신뢰성 점착소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차량 내부의 디스플레이 적용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진동, 고온·고습 및 장기 사용 환경에서도 접착력과 내구성을 유지하는 소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동사는 고객 기기 구조에 맞춘 소재 조합과 복합 적층 가공을 통해 적용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사업은 디스플레이 가공기술을 인접 시장으로 확장하는 성장 사업이지만, 차량용 소재는 장기간의 신뢰성 평가와 부품 승인 과정이 요구되므로 실질적인 매출 확대까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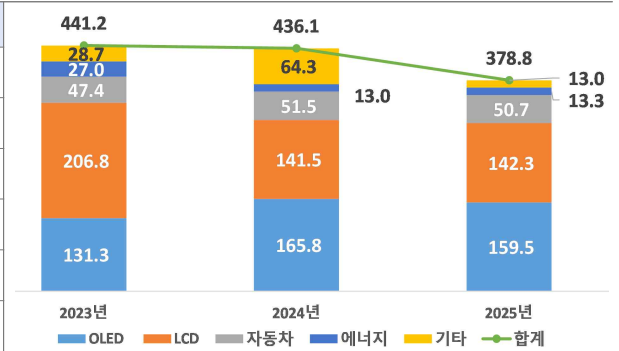
에너지 사업에서는 대형 이차전지용 TBF, 절연재, 방열소재 및 화염 차단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열폭주 시 화염과 열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화염 차단 소재는 기존 점착·가공기술에 내화성과 경량성을 결합한 제품으로, 동사는 두께와 소재 구성을 고객 요구에 맞게 조정한 후 적용 검증과 양산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는 디스플레이를 핵심 사업으로 유지하면서 자동차와 에너지 분야를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구조이며, 중장기 사업 안정성은 신규 분야가 디스플레이 수요 변동을 보완할 정도로 확대되는지에 달려 있다.

[표 3] 동사의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OLED	131.3	29.8%	165.8	38.0%	159.5	42.1%
LCD	206.8	46.9%	141.5	32.5%	142.3	37.6%
자동차	47.4	10.7%	51.5	11.8%	50.7	13.4%
에너지	27.0	6.1%	13.0	3.0%	13.3	3.5%
기타	28.7	6.5%	64.3	14.7%	13.0	3.4%
매출 합계	441.2	100.0%	436.1	100.0%	378.8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영업 과정에서 고객의 제품 구조와 사용환경을 분석한 후 적합한 소재를 선정하고, 가공 형상과 공정조건을 조정해 시제품과 양산품을 공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고객사 제품 개발단계에서 소재가 채택되면 해당 모델의 양산기간 동안 반복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모델 단종이나 설계 변경 시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어 개별 고객과 제품주기에 대한 의존성이 존재한다.

주요 고객군은 디스플레이 패널·모듈 및 완제품 제조사, 자동차 부품 제조사, 이차전지 셀·모듈·팩 관련 업체로 구성되고, 소재의 가격, 접착 신뢰성, 치수 정밀도, 오염 관리, 납품 안정성 및 현지 대응능력을 종합 평가하므로 생산거점과 품질관리 체계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동사는 IATF 16949 자동차 품질경영 시스템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A등급을 바탕으로 자동차 및 해외 고객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판매조직은 본사에서 한국/일본고객에 대한 기술 영업을 하고 있고, 각 해외법인에 현지에서의 대응을 위한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광저우 법인은 심천에 별도의 영업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화권 고객에 대한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판매전략은 범용 제품의 외형 확대보다 방열, 전자파 차폐, 내화학적 및 화염 지연 기능을 부가한 맞춤형 고부가 제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중 이다. 동사는 인공지능 기반 비전검사와 대량생산 공정의 효율화를 통해 불량과 제조원가를 낮추고, 제품별 수익성을 고려해 매출을 관리하고 있다.

II. 시장 동향

고기능·친환경 산업용 점착·접착소재 수요 확대 속 적용처 다변화가 경쟁요인으로 부상

목표시장은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 등 전방산업에서 접합뿐 아니라 방열, 절연, 난연, 충격흡수, 차광, 보호 기능을 함께 요구하면서 고기능 소재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체 점착테이프 시장은 성숙 산업의 성격을 보이거나, OLED 및 IT용 고사양 디스플레이 확대, 자동차 경량화와 전장화, 전기차 배터리의 열관리·안전성 강화, 친환경·저VOC 소재 전환 흐름이 산업용 기능성 소재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선도업체의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가 높고, 범용 제품에서는 가격 경쟁이 지속 중으로, 고객 맞춤형 기능 설계 및 정밀 가공 등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 산업용 기능성 점착·접착소재 시장의 특성

목표시장은 산업용 기능성 점착·접착소재 시장으로 정의된다. 이는 범용 포장용 테이프나 일반 점착제 시장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 산업재 등에 적용되어 접합과 동시에 보호, 방열, 절연, 차광, 충격흡수, 방수·방진, 난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고기능 소재 시장을 의미한다. 제품 기준으로는 기능성 점착테이프, 점착소재, 핫멜트 점착필름, 보호필름, 산업용 점착제 및 실란트 등이 포함된다.

시장 구조는 전방산업의 제품 개발 및 양산 일정과 밀접하게 연동된다. 산업용 점착·접착소재는 고객사의 제품 설계 단계에서 소재 사양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양산 단계에서는 고객사의 생산계획과 모델 채택 여부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장 수요는 완제품 판매량뿐 아니라 고객사의 신규 모델 출시, 소재 승인, 공급망 재편, 생산지역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기술적으로는 피착재의 종류와 사용 환경에 따라 요구 물성이 크게 달라진다. 금속, 플라스틱, 유리, 필름, 섬유, 복합소재 등 서로 다른 소재를 안정적으로 접합해야 하며, 제품에 따라 내열성, 내화학성, 점착력, 박리성, 두께 균일성, 치수 안정성, 장기 내구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산업용 기능성 점착·접착소재 시장은 범용 소재 시장보다 고객 맞춤형 성격이 강하고, 제품 승인 및 품질 검증 절차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소재기업과 전문 기능성 소재기업이 병존하며 경쟁하는 형태다. 글로벌 기업은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 브랜드 신뢰도,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고부가 산업용 시장에서 강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국내 및 아시아권 전문기업은 특정 전방산업이나 고객사 요구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 빠른 납기 대응,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목표시장에서는 범용 제품의 가격 경쟁과 고기능 제품의 기술 경쟁이 동시에 나타난다.

가격 구조는 원재료와 고객사 사양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주요 원재료는 플라스틱 필름, 고분자 수지, 점착제, 첨가제, 이형지, 보호필름 등 석유화학계 소재가 중심이며, 국제유가, 환율, 합성수지 수급 상황에 따라 제조원가가 영향을 받는다. 다만 고기능 제품은 단순 원가보다 기능 구현, 고객 승인, 품질 안정성, 장기 공급 신뢰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 확보가 가능하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목표시장의 핵심 트렌드는 고기능화, 전방산업 다변화, 친환경화로 요약된다. 과거 점착소재는 고정과 접합 기능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방열, 절연, 난연, 충격흡수, 차광, 전자파 차폐, 방수·방진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소재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재기업의 경쟁력은 단순 생산능력보다 소재 배합, 기능 설계, 정밀 가공, 고객사 요구 물성 구현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대면적 디스플레이 시장은 성숙 단계에 진입했지만, OLED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등 IT용 OLED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고해상도, 박형화, 대형화가 진행될수록 패널 보호, 방열, 접합 안정성, 이물 유입 방지, 빛샘 방지 기능을 갖춘 점착·접착소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다만 OLED TV 수요는 성장 속도가 제한적일 수 있어, 디스플레이용 소재 시장은 세트 제품별 수요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경량화와 전장화가 점착·접착소재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는 연비 개선,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경량 소재 적용을 늘리고 있어, 금속, 플라스틱, 복합소재 등 이종소재 접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점착소재는 용접이나 나사 체결을 일부 대체하거나 보완하면서 차량 중량을 줄이고, 응력 분산, 진동 저감, 방수·방진, 설계 자유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2차전지 및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고용량화와 고출력화가 진행되면서 셀, 모듈, 팩 단위에서 열 관리와 전기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방열·절연·난연 소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열전도성 소재, 절연 필름, 난연 점착소재, 충격흡수 및 보호 소재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배터리 업체별 설계와 공급망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전방산업의 투자 사이클에 따라 수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전방산업 다변화와 더불어 세계 점착테이프 시장은 2024년 851.4억 달러 규모에서 2029년 1,057.8억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4.4%의 성장률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도 2024년 14.6억 달러에서 2029년 17.3억 달러로 연평균 3.5%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시장은 성숙 산업의 성격을 보이나, 전기·전자, 자동차, 의료, 건축, 2차전지 등 고기능 응용처 확대가 안정적인 성장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용 점착소재는 석유화학계 원료와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환경 규제 강화와 고객사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요구 확대로 저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무용제형, 수성, 재활용 가능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친환경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자동차, 전자, 소비재 분야에서는 유해물질 저감, 작업환경 개선, 폐기물 축소가 소재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산업용 기능성 점착·접착소재 시장은 범용 점착테이프 시장의 안정적 수요를 기반으로 하되, 디스플레이, 자동차, 2차전지, 전기전자 등 고기능 산업에서 성장 기회를 확보하는 구조다. 동사 입장에서는 기존 디스플레이용 기능성 점착소재를 기반으로 자동차 및 에너지 분야로 적용처를 확대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선도업체와의 기술 경쟁, 범용 제품의 가격 경쟁, 원재료 가격 변동, 고객사 승인 및 양산 채택 불확실성이 병존하므로, 향후 경쟁력은 고객 맞춤형 기능 설계, 정밀 가공, 고기능·친환경 제품 개발, 전방산업 다변화 역량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글로벌 점착테이프 시장

(단위 : 억 달러)

[그림 2] 국내 점착테이프 시장

(단위 : 억 달러)



자료: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기능성 점착소재 설계와 정밀가공 기술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다양한 제품 제조 가능

동사는 기능성 원료와 점착테이프·폼·필름을 복합 설계하고 정밀 가공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 및 이차전지용 부품으로 구현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심 기술은 고기능 점·접착 소재 설계와 복합 적층, 정밀 합지·타발 및 갭 형성 가공, 대형 OLED 봉지재 정밀 재단, 이차전지용 화염·열 차단 소재 기술로 구성되며, 고객 제품의 구조와 사용환경에 맞춘 맞춤형 양산 대응이 강점이다. 연구개발은 디스플레이용 열·전기 기능성 소재 고도화, 자동차용 고신뢰성 점착소재, 이차전지용 내화·절연·내화학 소재 및 공정 자동화에 집중하고 있고, 관련 지식재산권도 확보하였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장점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점착테이프, 폼, 필름 및 기능성 원료를 고객 제품의 구조와 사용환경에 맞춰 설계하고, 이를 정밀 가공부품으로 구현하는 점·접착 솔루션 역량에 기반한다. 점착력, 탄성, 두께, 열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을 조정할 다층 소재를 설계한 후 고객 생산공정에 적합한 형상으로 양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기능 점·접착 소재 설계 및 복합 적층 기술은 동사의 대표적인 기반 기술이다. 폴리우레탄·실리콘·아크릴 등의 폼 기재와 점착층, 필름 및 기능성 소재를 조합해 점착력뿐 아니라 충격 흡수, 차광, 방열, 전자파 차폐, 절연 및 내화학성과 같은 부가기능을 구현한다. 디스플레이용 점착테이프에는 양면의 점착력을 다르게 설계해 패널 고정력과 재박리성을 함께 확보하거나, 점착층 사이에 탄성층을 배치해 고온·다습 환경에서의 밀림과 박리 잔사를 줄이는 구조가 적용된다. 이 기술은 고객의 제품 구조와 요구 물성에 따라 소재 조합과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용 테이프와 차별화된다.

정밀 합지·타발 및 갭 형성 가공 기술은 기능성 소재를 실제 부품으로 전환하는 핵심 제조기술로, 슬리팅, 라미네이팅, 프레스 타발, 다이컷 및 롤패드 가공을 조합해 고객이 요구하는 폭, 두께, 형상 및 부품 간 간격을 구현하고 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는 기재 사이에서 소재를 이송·절단해 제품 사이에 일정한 갭을 자동 형성하는 기술은 재료 수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후속 배치공정을 줄이는 데 활용된다. 이는 갭 커터, 갭 슬리터, 복합 타발기 등 자체 공정설비와 연계되어 다품종 맞춤형 부품의 연속 생산과 품질 재현성 확보에 기여한다.

대형 OLED 봉지재 정밀 재단 기술은 동사의 디스플레이 가공기술이 고부가 공정으로 확장된 사례다. OLED 패널용 봉지재인 FSPM(Face Sealing PSA & Metal)의 형상과 크기에 맞춰 나이프와 금형 구조를 설계하고, 나이프 내·외측에 보강판 또는 탄성 지지부재를 배치해 재단 과정의 소재 변형과 절단 불량을 억제한다. 커팅용 나이프에는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물리적 기상증착) 방식의 DLC(Diamond-Like Carbon, 다이아몬드상 탄소) 피막을 적용해 반복 가공에 필요한 내구성을 높이고 있다. 동사는 관련 공정을 97인치급 대형 OLED 제품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으며, 고객사와의 공동개발 및 중국 생산거점 투자를 통해 검증 이후의 양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형 이차전지용 화염·열 차단 소재 기술은 기존 점착·적층 역량을 배터리 안전 분야로 확장한 기술로, 동사의 대용량 배터리(전기차, ESS)용 내화(Flame Barrier) 시트는 화염으로부터 직접적인 열전달을 차단하는 화염차단층과 필름형·폼형의 이중 내화점착층을 적층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화염차단층에는 운모, 실리카, 알루미늄, 유리섬유 및 내화섬유 등의 소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점착층에는 난연제, 열팽창제 및 내화 무기물을 배합해 점착성과 화염 지연 기능을 함께 구현한다. 두께와 소재 구성을 셀·모듈·팩 구조에 맞게 변경할 수 있고 기존 단순 내화시트보다 점착 기능과 경량화를 함께 고려했다는 점이 주요 특장점이다.

■ 연구개발 역량

동사는 원천기술 연구보다는 전방산업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문제를 점착소재와 가공공정으로 해결하고 양산제품으로 전환하는 응용·상용화형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개발 방향은 디스플레이 제품의 기능 고도화, 자동차 전장용 고신뢰성 소재 확대, 이차전지 안전소재 개발 및 제조공정 효율화로 구분된다. 보유한 점착·가공기술을 인접 시장에 적용해 제품 믹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연구개발활동의 주요 목적이다.

동사의 연구개발은 기존 디스플레이용 점착소재의 기능 고도화와 자동차 전장·이차전지용 신규 소재 개발, 제조공정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도전성 폼패드, 열방사·열전도 복합소재, 공기 유입 방지 패드 및 열차단 소재 등을 개발해 고해상도화와 박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발열 및 구조 안정성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진동과 고온·고습 환경에서도 접착력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재 및 정밀 가공조건을 개발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화염 지연, 열차단, 절연, 내화학적 및 초기 소화기능을 갖춘 점착소재로 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은 고객 적용시험과 성능 검증을 거쳐 양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갭 커터·갭 슬리터의 생산성 개선, 복합 타발 및 롤패드 설비 자동화, 인공지능 기반 비전검사 도입 등을 통해 소재개발 성과를 양산 안정성과 원가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제조기술 고도화도 병행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

동사의 지식재산권은 소재의 조성뿐 아니라 점착층 구조, 정밀 가공장치, 재단용 금형 및 제조방법까지 포괄하는 생산현장 연계형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특허가 폼패드의 인장강도, 점착력 차등화 및 재작업성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 특허는 대형 OLED의 절단 정밀도와 금형 내구성, 배터리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다층소재 구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보유 특허는 OLED 봉지재 가공과 이차전지용 기능성 소재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OLED 분야에서는 주요 소재업체와 공동으로 국내 특허를 확보하고 중국에서도 프레스 재단장치 관련 권리를 등록했으며, 내측지지판·보강판을 적용한 금형 구조와 DLC 피막 커팅 나이프 등 핵심 공정요소를 복수의 특허로 보호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도전성·내화학적 폼패드와 화염 지연·초기 소화기능 점착소재의 권리화를 추진해 왔고, 2026년 6월 필름형과 폼형 내화점착층을 결합한 전기차 배터리용 내화 시트가 국내 등록되면서 일부 기술이 등록권리로 구체화되었다. 다만 일부 이차전지 관련 권리는 아직 출원 또는 심사 단계에 있어 향후 등록 여부와 실제 양산 적용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EFR Foam pad'가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전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는 브랜드 확대보다 고객 맞춤형 소재·구조 및 제조공정 기술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인증을 비롯해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4001 환경경영시스템 및 IATF 16949:2016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디스플레이·자동차 고객이 요구하는 공정관리, 변경관리, 추적성 및 불량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5년 AEO 인증 취득 이후 2025년 AA등급으로 상향됐고, 중국 수저우법인과 베트남법인은 SONY Green Partner에 등록돼 해외 생산거점의 통관 안정성과 유해물질·환경관리 대응 기반을 갖추고 있다. 다만 신규 이차전지용 내화소재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 경영시스템 인증과 별도로 제품별 성능시험, 안전성 평가 및 고객사 승인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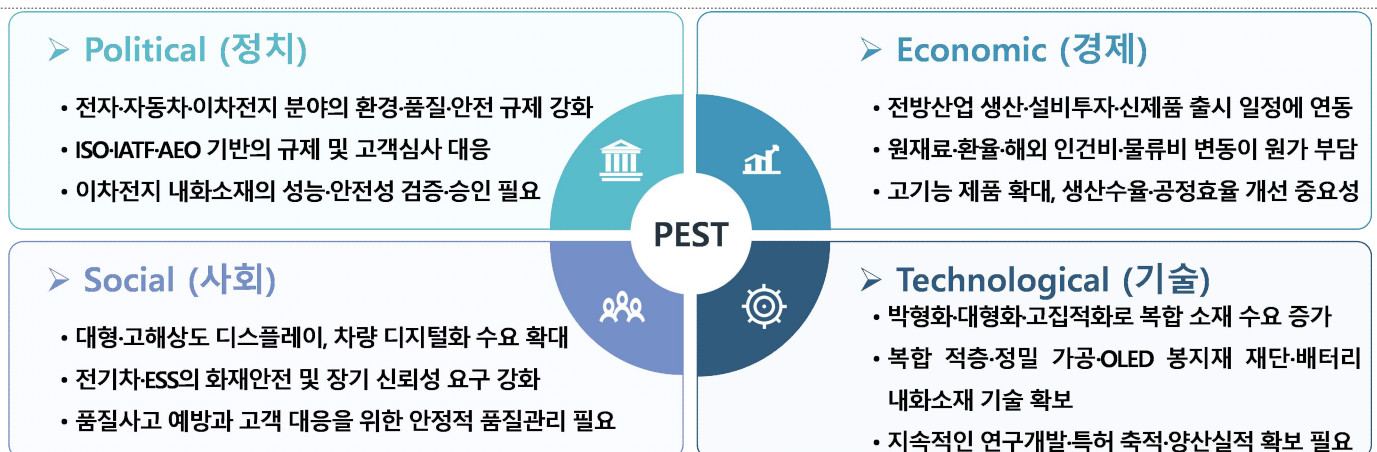
산업용 기능성 점·접착소재 시장은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자동차 부품의 품질·추적성 기준, 이차전지 화재안전 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 관리 강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예선테크는 ISO 14001, IATF 16949, AEO AA등급 및 해외 생산법인의 환경관리 인증을 기반으로 관련 규제와 고객사 심사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차전지용 내화·열차단 소재는 별도의 성능시험과 안전성 검증이 요구되므로 제품별 인증과 고객 승인 확보가 시장 진입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사의 주력 수요는 디스플레이·자동차·이차전지 생산량과 설비투자,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일정에 연동되며, 원재료 가격과 환율, 해외 생산거점의 인건비 및 물류비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범용 디스플레이용 점착부품은 고객사의 단가 인하 요구와 중국 업체의 가격경쟁에 노출될 수 있는 반면, 대형 OLED 봉지재, 자동차 전장 및 이차전지 안전소재는 높은 신뢰성과 맞춤형 가공을 요구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수익성은 단순 물량 확대보다 고기능 제품의 매출 비중 확대와 생산수율·공정효율 개선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의 대형·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선호, 차량 내 디지털화 확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는 기능성 점·접착소재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동시에 전자제품의 친환경성, 자동차 부품의 장기 신뢰성 및 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단순 접착 기능보다 충격 흡수, 방열, 절연, 유해물질 관리 및 화염 확산 지연 기능을 갖춘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동사에 신규 적용처 확대 기회를 제공하지만, 품질사고 발생 시 고객 신뢰와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신속한 현지 대응이 요구된다.

산업용 기능성 점·접착소재는 제품의 박형화·대형화·고집적화에 따라 접착력뿐 아니라 열관리, 전자파 차폐, 내화학성, 절연성 및 난연성을 복합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선테크는 기능성 소재의 복합 적층, 정밀 합지·타발, 갭 형성 가공, 대형 OLED 봉지재 재단 및 이차전지용 내화시트 기술을 기반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비전검사와 스마트공정 도입을 통해 양산 품질과 수율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소재기술의 고도화 속도가 빠르고 고객 승인기간이 길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특허 확보 및 실제 양산실적 축적이 기술경쟁력 유지의 핵심 과제로 판단된다.

[그림 3]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체질 개선 기반의 수익성 회복과 단기유동성 부담 완화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441.2억 원, 2024년 436.1억 원, 2025년 378.8억 원으로 나타났다. OLED 및 자동차 부문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를 보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원가율 및 판매비율 완화를 통해 손실 폭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며, 2025년 하반기 이후 흑자로 전환하였다.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현금 규모가 크지 않고 차입 부담이 존재하지만, 전환사채 상황과 차입 구조 조정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 OLED 디스플레이 부문 매출 기반 유지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441.2억 원, 2024년 436.1억 원, 2025년 378.8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3.2% 감소하여 외형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적자/비수익 제품군의 판매 중단에 기인하였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OLED] 부문은 2023년 131.3억 원, 2024년 165.8억 원, 2025년 159.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최대 매출원을 나타냈다. [LCD] 매출액은 2023년 206.8억 원, 2024년 141.5억 원, 2025년 142.3억 원으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매출 비중도 상승하였다. [자동차] 부문은 2023년 47.4억 원, 2024년 51.5억 원, 2025년 50.7억 원으로 비중이 10.7%, 11.8%, 13.4%로 점차 증가하였다. [에너지] 부문은 2023년 27.0억 원, 2024년 13.0억 원, 2025년 13.3억 원을 기록하였다. [기타]는 2023년 28.7억 원, 2024년 64.3억 원, 2025년 13.0억 원으로 2025년에는 축소되었다.

지역별 매출액은 2025년 기준 한국 140.4억 원, 중국 129.1억 원, 베트남 68.0억 원, 기타 41.3억 원으로 구성되며, 해외 매출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비중이 높았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05.2억 원으로, 전년 동분기(101.3억 원) 대비 3.8% 증가하였다. 동사는 LCD 중심 사업구조에서 OLED 및 자동차용 고기능 점착소재 중심으로 제품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동사는 현재 신규 응용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디스플레이 사업을 넘어 고객사 양산 확대와 신규 제품 매출이 본격화될 경우 외형 성장세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원가 부담 완화되며 2025년 하반기 이후 흑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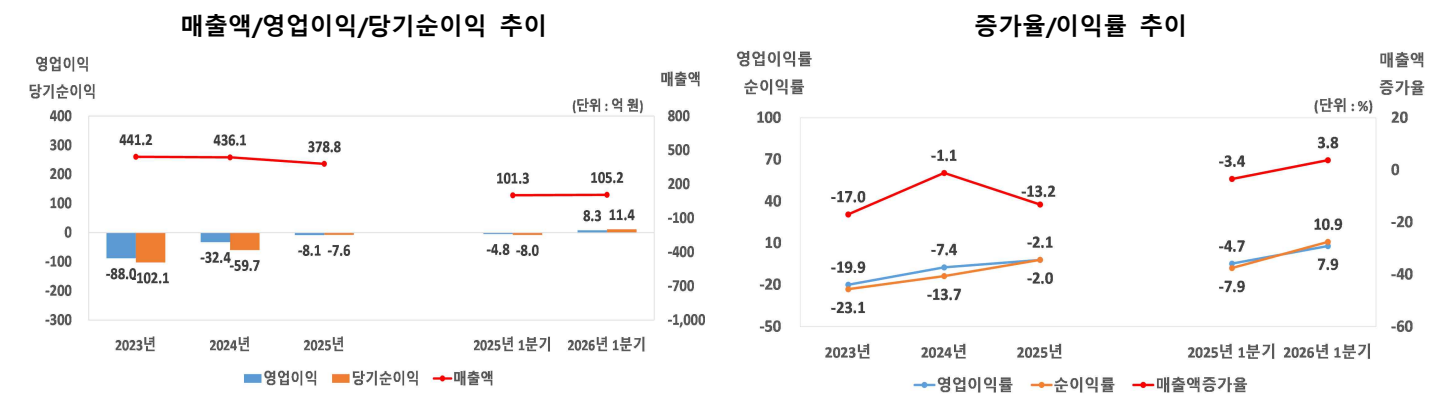
동사는 3개년 동안 영업적자를 나타냈으며, 영업손실 규모는 3년간 2023년 88.0억 원, 2024년 32.4억 원, 2025년 8.1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과 판매비율이 개선되며 적자 폭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 매출원가율은 2023년 90.7%, 2024년 82.4%, 2025년 80.3%로 감소하였고, 판매비율도 29.2%, 25.0%, 21.9%로 개선되었다. 급여가 2024년 50.1억 원에서 2025년 43.9억 원으로 줄었으며, 보상비 환입 4.3억 원이 계상되는 등의 판매비 절감이 존재하였다.

3년간 당기순손실 규모는 2023년 102.1억 원, 2024년 59.7억 원, 2025년 7.6억 원으로 나타났다. 순손실 규모 역시 축소 흐름을 보였으며, 영업적자 완화와 더불어 기타비용 부담이 감소하였다. 2024년 26.0억 원의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여 기타비용이 총 36.2억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기타비용이 8.1억 원으로 완화되었다.

2026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 8.3억 원, 당기순이익 11.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였다. 동사는 외형 확대보다 이익률 중심의 사업 운영으로 전환하며 고부가 기능성 점착소재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생산 공정 자동화, 원가 절감 및 제품 믹스 개선 등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흑자 기조가 2026년 1분기에도 지속되었다. 향후 OLED·자동차·배터리 소재 중심의 고부가 제품 확대가 이어질 경우 수익성 개선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4]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전환사채 상환 및 차입 구조 조정으로 재무 부담 완화

동사의 자산총계는 2023년 542.1억 원, 2024년 533.2억 원, 2025년 510.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유동자산은 2024년 190.9억 원에서 2025년 174.0억 원으로 줄었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4년 23.6억 원에서 2025년 19.5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유동비율은 2024년 70.8%에서 2025년 147.8%로 증가하는 등 유동부채 축소에 따라 유동성이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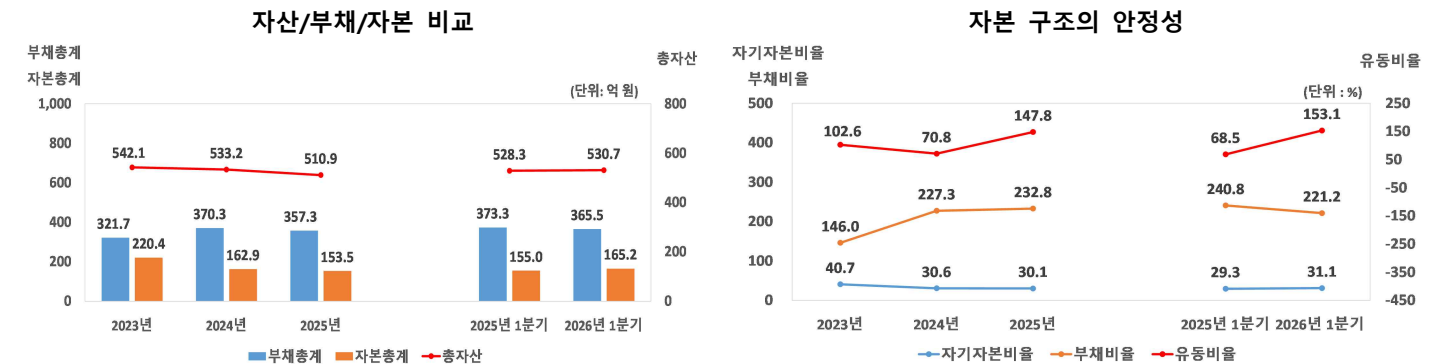
3년간 부채총계는 2023년 321.7억 원, 2024년 370.3억 원, 2025년 357.3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2023년 146.0%, 2024년 227.3%, 2025년 232.8%로 증가하였다. 다만,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이 2024년 175.9억 원에서 2025년 62.2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연장하며 단기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였다. 전환사채도 조기상환으로 2024년 14.1억 원에서 2025년에 3.1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자본총계는 2023년 220.4억 원, 2024년 162.9억 원, 2025년 153.5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와 환율변동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2026년 1분기에는 유동비율 153.1%, 부채비율 221.2%, 자기자본비율 31.1%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대비 유동성이 개선되고, 전환사채 전액 만기전 취득 및 소각으로 재무 부담이 완화되었다. 전반적으로 동사 제공자료에 따르면 25년 3분기 부터 흑자기조를 이어오고 있었고, 2026년 1분기에는 유동성 개선과 전환사채 소각이 확인되었다. 다만 부채비율이 221.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영업현금흐름도 2.5억 원에 그쳐, 재무안정성이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향후 수익성 개선이 영업현금흐름 확대로 이어지고 총차입부채가 실질적으로 축소될 경우 재무안정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441.2	436.1	378.8	101.3	105.2
매출액증가율(%)	-17.0	-1.1	-13.2	-3.4	3.8
영업이익	-88.0	-32.4	-8.1	-4.8	8.3
영업이익률(%)	-19.9	-7.4	-2.1	-4.7	7.9
순이익	-102.1	-59.7	-7.6	-8.0	11.4
순이익률(%)	-23.1	-13.7	-2.0	-7.9	10.9
부채총계	321.7	370.3	357.3	373.3	365.5
자본총계	220.4	162.9	153.5	155.0	165.2
총자산	542.1	533.2	510.9	528.3	530.7
유동비율(%)	102.6	70.8	147.8	68.5	153.1
부채비율(%)	146.0	227.3	232.8	240.8	221.2
자기자본비율(%)	40.7	30.6	30.1	29.3	31.1
영업현금흐름	6.7	11.0	0.3	6.1	2.5
투자현금흐름	-3.9	-22.0	-20.3	0.1	0.3
재무현금흐름	-18.5	16.1	15.9	-13.6	-10.4
기말현금	18.0	23.6	19.5	15.5	16.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 제공자료에 따르면 2026년 매출은 445억 원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증가하며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비수익 품목의 정리로 전체 매출이 축소되었으나, 2026년에는 LCD와 자동차 부문의 확대가 매출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OLED 부문 매출은 2024년 165.8억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5년 159.5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2026년에는 160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예상된다. 대형 OLED용 봉지재 및 고기능 점착소재의 양산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고객사의 신규 모델 출시와 패널 생산 계획에 따라 실적이 변동될 수 있어 단기적 급격한 성장보다 기존 매출 기반을 유지하는 수준이 예상된다.

LCD 부문 매출은 2025년 14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2026년에는 205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체 매출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LCD 부문 매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폼패드 품목군의 성능 및 품질 개선으로 국내 및 중국 시장내 점유율이 증가 중이고, 26년 중반 프리미엄 그레이드 폼패드 신제품 출시로 점유율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노트북 PC용 매출도 증가 추세이다. 다만 LCD용 제품은 가격 경쟁과 고객사의 단가 인하 요구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므로, 매출 증가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는 폼패드 제품군의 실제 확대 여부와 원가 절감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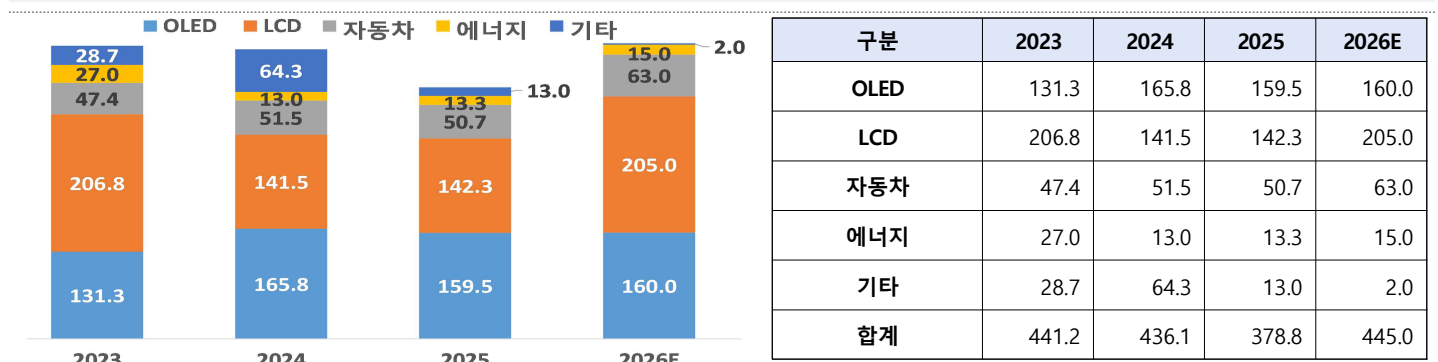
자동차 부문 매출은 2023년 47.4억 원에서 2025년 50.7억 원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2026년에는 63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 구축한 AI기반 비전검사설비를 통해 고객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자동차 디스플레이 및 HVAC용 고신뢰성 점착소재의 적용 확대가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용 소재는 고객 승인과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양산 차종과 적용 부품이 확대될 경우 반복 공급 기반을 형성할 수 있어 중기적인 사업 다각화의 핵심 부문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부문 매출은 2025년 13.3억 원에서 2026년에는 15억 원으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 이차전지용 TBF, 절연·방열소재 및 열폭주 방지용 내화소재가 개발되고 있으나, 예상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전체 실적을 크게 견인하기보다는 고객 검증과 양산실적을 축적하는 단계로 판단된다. 기타 부문 매출은 2025년 13억 원에서, 2026년 2억 원으로 예상돼 실적 기여도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종합하면 2026년 실적은 LCD 시장내 폼패드 점유율 확대와 자동차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LCD와 자동차 부문 중심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어, 두 부문의 주문량 납품 및 양산계획 이행 여부가 전망 달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OLED가 안정적인 기반 매출을 유지하고 자동차·에너지용 고기능 소재가 점차 확대될 경우 디스플레이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OLED와 LCD의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디스플레이 업황과 주요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화가 실적 변동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그림 6]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기존 사업의 경쟁력 고도화와 더불어 자동차·이차전지용 기능성 소재의 양산 전환 추진

동사는 OLED·LCD용 점착부품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자동차 전장과 이차전지 안전소재로 적용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구축과 인공지능 기반 비전검사 도입을 통해 생산 자동화와 품질관리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주주환원은 즉각적인 배당 확대나 자기주식 소각보다 재무구조 안정과 배당 여력 확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고, 2026년 주식병합은 주당 지표의 가시성과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 대응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는 대형 OLED 봉지재, 차량용 디스플레이·HVAC 점착소재, 이차전지용 내화·열차단 소재의 고객 승인과 양산 전환이 성장의 핵심이며, 공정 자동화와 품질 데이터 활용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는 최근 대형 이차전지용 열접착필름, 열관리 소재 및 절연부품을 별도 사업영역으로 구체화하고, 디스플레이 중심의 정밀가공 역량을 자동차 전장과 에너지 안전소재로 확장하려는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차전지용 도전성·내화학성 폼패드와 화염 지연 점착소재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OLED 봉지재 가공기술의 중국 권리 범위를 넓힌 점도 신규 분야의 사업화를 준비하는 흐름으로 판단된다.

생산체계에서는 자동화와 품질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동사는 2025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돼 인공지능 기반 비전검사, 가공설비 자동화 및 품질 판정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도 AA등급으로 상향됐다. 이는 소재개발 성과를 양산 수율과 품질 재현성으로 연결하고,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생산거점의 통관 및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주환원정책은 배당가능재원 확보와 재무구조 안정화를 우선한 뒤 이익의 지속성이 확인되는 시점에 배당 확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보유 자기주식은 소각보다는 임직원 주식보상에 활용할 계획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되는 정책은 현금배당이나 자기주식 소각을 즉시 확대하는 적극적 환원책보다 사업 정상화 이후의 배당 여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6년에는 보통주 5주를 1주로 합치는 주식병합을 완료했으며, 병합 신주의 거래는 7월 23일 재개되었다. 이번 조치는 유통주식 수와 주가 표시 단위를 조정하고 주당 지표의 가독성을 높여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자본시장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주식병합은 주주의 지분율이나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고 현금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조치도 아니므로, 직접적인 주주환원보다는 시장평가 환경을 정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 향후 전망

동사의 단기 사업 방향은 기존 OLED·LCD용 점착부품의 수익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범용 제품보다 기능성이 높은 소재와 정밀가공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대형 OLED 봉지재 재단기술과 방열·차광·충격 흡수 기능을 결합한 점착부품은 디스플레이의 대형화·박형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다. 최근 OLED의 적용처가 TV와 모바일을 넘어 모니터·노트북, 차량용 디지털 콕핏 및 다양한 지능형 기기로 확대되고 있어 관련 소재의 적용 기회는 증가할 수 있으나, 패널업체의 투자 일정과 신제품 양산계획 및 공급단가 인하 요구는 지속적인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HVAC용 점착소재가 주요 확장 영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차량 내 화면의 대형화와 통합화가 진행되면서 고온·고습, 진동 및 장기 사용환경에서 접착 성능을 유지하는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당사는 디스플레이 부품에서 축적한 소재 설계와 정밀가공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부품은 개발 초기부터 장기간의 신뢰성 평가와 변경관리, 차종별 승인이 요구되므로 고객 승인의 실제 양산 전환에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차량용 OLED 시장의 확대는 기회 요인이지만, 완성차 업체의 원가 절감 기조와 LCD·OLED 간 채택 경쟁은 부담 요인이다.

이차전지 분야는 화염 차단, 절연, 열관리 및 내화학 기능을 갖춘 점착소재를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존재한다. 당사는 전기차 배터리용 내화시트와 화염 지연 점착소재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확보와 고객 적용시험을 납품 확정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배터리 안전 요구 강화는 관련 소재 수요에 긍정적이지만, 제품별 안전성 시험과 고객 승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기존 내화재·단열재 업체와의 경쟁도 예상되므로 단기간 내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을지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공장과 인공지능 비전검사 도입은 향후 경쟁력 개선의 주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능성 점착부품은 소재 물성뿐 아니라 타발 정밀도, 이물 관리, 치수 편차와 생산수율이 납품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검사 자동화와 공정 데이터 축적은 자동차·이차전지 고객의 품질심사 대응에 유리하다. 다만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원가와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며, 설비 안정화와 현장 데이터의 활용 수준 및 해외 생산거점으로 적용 범위 확대가 실제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주가치 측면에서는 주식병합을 통해 주가 표시 단위와 주당 지표의 가시성이 개선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는 신규 제품의 고객 승인,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안정적인 현금창출력 확보에 달려 있다. 현재 배당은 재무구조 안정화와 배당가능재원 축적 이후 확대한다는 조건부 방향이며, 보유 자기주식도 소각이 아닌 임직원 보상에 활용할 계획이어서 단기적인 직접 환원 수준은 제한적이다. 향후에는 배당 개시·확대의 판단기준과 자기주식 활용방향을 구체화한 중장기 정책을 제시할 경우 주주환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예선테크(25093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7.2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예선테크	X	X	X